



Gaya Island Resort A Nature-Filled Retreat

가야아일랜드 리조트에서 보낸 자연주의 휴가

코타키나발루의 매력은 단순히 아름다운 바다나 석양에만 있지 않다.
가야섬의 고요한 새벽과 해변의 황홀한 석양, 맹그로브 숲과 원주민 문화까지. 자연과 사람이
오랜 시간 함께 만들어온 이야기가 있는 곳, 가야 아일랜드 리조트에서 보낸 자연주의 휴가.

WRITTEN BY YEOHAYEON SUPPORTED BY GAYA ISLAND RESORT, AIRASIA



- 1 가야섬에 위치한 가야아일랜드 리조트는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맹그로브 숲에 둘러싸여 있다.
- 2 리조트 내에는 총 121개의 빌라가 자리하며 전통적인 사바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네 가지 타입으로 구성된다.
- 3 피스트 빌리지에선 수영장과 해변 전망을 감상하며 조식 및 중식을 즐겼다.
- 4 가야섬에서 목격한 황홀한 선셋. 코타키나발루가 왜 석양 명소 1등으로 꼽히는지 실감했다.

코타키나발루에 도착하자, 비염으로 콧막혔던 코가 뚫리고 눈이 시원해지는 듯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북단에 위치한 사바주의 주도인 코타키나발루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키나발루산과 에메랄드빛 바다를 품고 있어 산과 바다 중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겐 최적의 선택지다.

툰쿠 압둘 라만 해양국립공원(Tunku Abdul Rahman Marine Park)에 속한 가야섬, 사피섬, 마무티섬, 술룩섬, 마누칸섬, 이 5개의 섬이 코타키나발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 코스로 꼽힌다. 투어 상품을 이용하거나, 개별적으로 아름다운 섬을 구경하고, 스노클링을 비롯한 해양 스포츠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여행자가 많다. 이번 여정의 숙소는 가야섬에 위치한 가야 아일랜드 리조트다. 전에도 가야섬을 찾았지만 만나질, 혹은 하루 동안 짧게 즐기다가 시내로 돌아가는 일정이 아쉬웠는데, 섬에 있는 리조트에 머문다니 기대감에 마음이 부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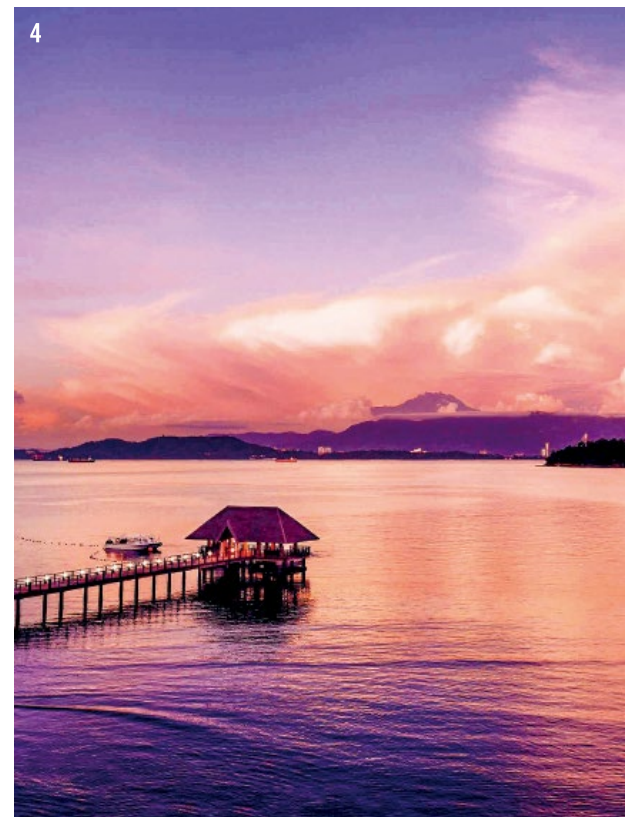
제셀톤 선착장에서 전용 보트를 타고 20여 분 달리면 가야섬에 이른다. 툰쿠 압둘 라만 해양국립공원 내 가장 큰 섬인 가야섬은 약 15km² 규모로 섬 전체가 보호구역이다. 리조트에 도착해 직원들의 환대를 받으며 웰컴 음료를 마시고 나니 그제야 산뜻한 바다와 열대우림에 둘러싸인 빌라들이 눈에 들어온다. 잔잔한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거나 카약을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 순간이동이라도 한 듯 도시에서의 복잡한 상념이 스스로 사라진다. 배를 타고 20여 분 이동했을 뿐인데 깊은 자연 속으로 들어온 느낌이다. PR 컨설턴트인 신시아에게 리조트에서의 첫인상을 말하자 “이곳에서는 자연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라고 답한다. 가야아일랜드 리조트에는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오래된 맹그로브 숲, 정글 생태계가 공존한다.

리조트 내에는 총 121개의 빌라가 자리한다. 전통적인 사바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객실은 네 가지 타입으로 구성된다. 열대우림 언덕에 자리한 바유 빌라, 맹그로브 숲 위에 지은 캐노피 빌라, 바다와 말레이시아 최고 봉 키나발루산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키나발루 빌라, 그리고 2층 구조의 수리아 스위트까지. 모든 빌라는 자연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내가 머문 곳은 키나발루 빌라였다. 객실로 다가서자 원숭이 두 마리가 문 앞을 지키고 서 있다. 순간 가야아일랜드 리조트의 보존 총괄 디렉터이자 자연학자인 저스틴의 말이 떠올랐다. “원숭이들이 노크를 하거나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숭이와 눈을 직접 마주치는 건 좋지 않아요. 원숭이는 그걸 공격의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자극하지 않는 한 공격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가야아일랜드 리조트에는 긴꼬리원숭이뿐 아니라 보르네오 왕도마뱀, 게코, 코뿔새, 대벌레 등 다양한 생물이 숲과 해안을 오가며 살아간다. 산책길을 걷다 야생동물과 마주치더라도 놀랄 필요는 없다. 이들은 불청객이 아니라, 거대한 자연 속에서 인간과 오랜 시간 공존해온 섬의 원주민 같은 존재다.

객실에 들어서니 발코니 너머로 반짝이는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코타키나발루는 석양으로 유명하지만 가야아일랜드 리조트는 섬 동쪽에 위치해 일출 또한 아름답다. 날이 맑으면 침대에서조차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다. 이른 아침, 발코니에 마련된 커다란 데이베드에 누워 동이 트기를 기다렸다. 바다 위의 섬 같은 거대한 키나발루산 저 너머에서 봉긋하게 떠오른 해가 서서히 수면 위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렇다고 코타키나발루에서 선셋을 놓칠 순 없다. 가야섬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일몰 장면을 만나려면 선셋 크루즈가 답이다. 프라이빗 요트 ‘리틀 프린세스(Little Princess)’에 몸을 실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선착장을 떠난 보트가 천천히 섬과 섬 사이를 가른다. 각테일과 샴페인을 마시며 여기저기서 인증샷을 찍어대는 사이, 짙은 에메랄드빛을 띠던 바다가 어느새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하늘은 오렌지빛, 붉은빛, 분홍빛이 층층이 겹쳐진 거대한 캔버스가 되고, 태양은 천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며 마지막 빛을 쏟아냈다.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선셋을 마주했지만 코타키나발루가 왜





1

석양 명소 1등으로 꼽히는지 실감했다.

자연 속으로 들어가다

가야 아일랜드 리조트에는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다. 리조트에서의 둘째 날, 해양생물학자와 함께하는 스노클링에 참여했다. 배를 타고 30여 분 달리자 스노클링 포인트에 닿았다.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잘 보존된 산호 삼각지대 서쪽 경계에 위치한 튼구 압돌 라만 해양국립공원에는 에메랄드빛 바다 아래로 산호초와 해초 군락이 이어지며 수백 종의 열대어와 바다거북이 살아간다. 스노클링을 하며 바닷속을 보니 물고기 숫자는 많지 않지만 종류는 여느 바다보다 많았다. 다음에는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머린 센터를 찾았다. 이곳에선 부러진 산호를 다시 복원시켜 바다로 돌려보내는 작업을 한다 “오늘 스노클링을 한 포인트는 2년 전만 해도 훨씬 아름다웠어요.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특별한 장소이지만 예전에는 더 특별한 곳이었죠.” 해양학자 스콧의 말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지구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여행자들은 머린 센터에서 산호 양식 교육을 받고, 직접 식재하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아주 작은 산호가 자라는 데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어떤 산호는 정말 거대한데 수 세기에 걸쳐 성장합니다. 파괴하는 건 쉽지만 회복하는 속도는 매우 느려요. 마치 건강처럼 말이죠.”

산호 복원 활동 외에도 가야아일랜드 리조트는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 카약을 타고 맹그로브 숲을 도는 것도 그중 하나다. 맹그로브 숲은 단순한 나무숲이 아니다. “건강한 맹그로브 숲은 바

다로 흘러드는 퇴적물과 오염원을 걸러 산호초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스틴의 안내로 카약을 타고 맹그로브 숲을 탐험했다. 물길을 따라 깊숙이 들어갈수록 거미줄처럼 얽힌 뿌리와 열대우림이 우거져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듯했다. “가야섬의 맹그로브는 크기는 크지 않지만 희귀한 맹그로브 종이 서식합니다. 거의 멸종된 종으로 300그루 정도만 남아 있어요.” 저스틴이 와일드 센터와 가야아일랜드 리조트 곳곳을 함께 돌며 리조트가 진행하는 맹그로브 복원 프로젝트, 야생 조류 구조 및 방생, 바다거북 구조 등 자연보호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액티비티를 마친 후 스파 빌리지로 향했다. 정글 한가운데 자리한 스파 빌리지는 단순히 마사지를 받는 공간이 아닌, 보르네오의 자연과 사바 원주민 문화에 몸을 맡길 수 있는 웰니스 공간이다. 스파를 받을 때 비가 내렸는데, 고요한 숲속에 온갖 새소리와 빗소리만이 가득 차 그 자체로 온전히 치유받는 기분이었다.

미식 체험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섬 안의 리조트에서 매 끼를 해결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루프 톱에 자리한 ‘피서맨스코브’는 랍스터, 타이거 새우, 생선 등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조달되는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제공한다. ‘피스트 빌리지’에선 수영장과 해변, 키나발루산 전망을 감상하며 조식과 중식을 즐겼다. 철판 요리가 일품인 ‘오마카세’에서는 셰프가 즉석에서 요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현지 쌀로 만든 와인 ‘리헝’과 함께 테판야키, 샤부샤부, 나베 등 세 가지 스타일의 일본식 오마카세 다이닝을 경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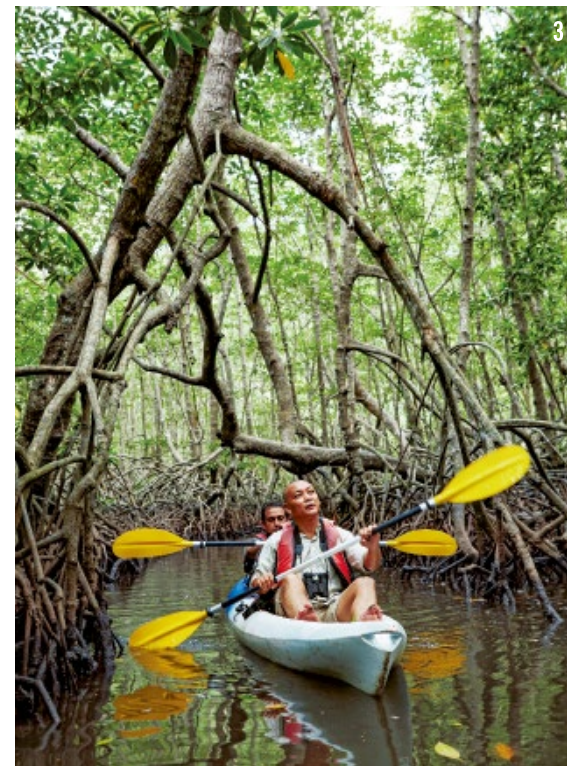
온전히 쉬러 온 여행은 휴식만을 선물하지 않았다. 원숭이와 도마뱀, 새와 물고기, 산호와 맹그로브 숲을 만나며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다. 가야섬의 고요한 새벽과 해변의 황홀한 석양, 맹그로브 숲과 원주민 문화까지. 자연과 사람이 오랜 시간 함께 만들어온 이야기는 자연과 공존하는 삶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

코타키나발루까지 가는 편안한 여정

코타키나발루는 에어아시아 항공편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갈 수 있다. 에어아시아 말레이시아(AK)는 6월부터 운항 스케줄을 일부 조정. 주 4회(월·수·금·일) 일정으로 인천-코타키나발루 노선을 운항한다. 에어아시아는 2024년 첫 취항 이래 슬롯 시간을 조금씩 변경하면서 한국 관광객을 위한 편의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 AK1624(인천-코타키나발루) 편은 오전 9시 20분에 인천에서 출발해 오후 1시 30분에 코타키나발루에 도착한다. 또 AK1623(코타키나발루-인천) 편은 오전 1시 55분 코타키나발루에서 출발해 오전 8시 20분 인천에 도착한다. 시차는 말레이시아가 한국보다 1시간 느리다. 오전 출발로 도착 후 여유 있는 오후 시간을 즐기고, 귀국할 때는 저녁 시간까지 꼭 채워 알찬 여행 일정을 짤 수 있다.



2



- 1 자연친화적인 가야아일랜드 리조트는 일상의 속도에서 벗어나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섬’의 공간이다.
- 2 스파 빌리지는 단순히 마사지를 받는 공간이 아닌, 자연과 사바 원주민 문화에 몸을 맡기는 웰니스 공간이다.
- 3 카약을 타고 맹그로브 숲을 도는 가야아일랜드 리조트의 프로그램.
- 4 리조트에서는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